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9 | 2025 JULY | 07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 사도행전 4:29 -

칼럼

- 숨겨진 교회, 그러나 주님께 드러진 믿음

비밀신자 이야기

- 소마예, 이란
- 카다, 아프가니스탄
- 기도와 후원

현장스토리

- 여러분의 후원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박해와 선교현장 - 이란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대구지역 순회 발표'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OpenDoors
전 세계를 위한 기도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7월호 | 통권 279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숨겨진 교회, 그러나 주님께 드러진 믿음

04 비밀신자 이야기

- 소마예, 이란 - 카다, 아프가니스탄
- 기도과 후원

10 현장스토리 - 여러분의 후원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2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4 박해와 선교현장 - 이란

21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대구지역 순회 발표'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숨겨진 교회, 그러나 주님께 드러진 믿음”

- 이슬람권 비밀신자들을 위한 중보



배춘섭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과 주임)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도 이슬람권의 비밀 신자들(Secret Believers)에게 날마다 생명을 건 고백으로 다가온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지구촌에 있음을 본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감시 속에 놓이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까지 받는다. 그들은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신앙을 공유할 공동체조차도 없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들의 입술은 침묵해도,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며 현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단절, 직업의 박탈, 공동체에서의 추방,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동반한 결정이다. 가령, 무슬림 배경 신자(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s)들은 신앙고백 이후 부모로부터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야 한다. 친구 하나 없이, 신분도 없이, 보호받지 못한 채 숨어 살아가는 이들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하셨다. 숨겨진 교회는 지하에서, 은밀한 온라인 공간에서, 때로는 사막의 조용한 장막에서까지 서로서로 모인다. 비록 공적 예배당은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는 결코 멈춤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 그곳은 어쩌면 조명이 없는 작은 방일 수 있다. 어쩌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조용히 찬송을 읊조리며 흥얼거리는 어느 젊은 여성의 입술일 수 있다. 아니면 손에 든 성경보다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슬람권의 비밀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기보다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외심과 격려의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깨우는 불씨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의 타협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자유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적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후원으로, 연대로. 비밀신자의 시대에도, 복음은 결코 감히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비록 우리는 그들이 받는 박해를 막을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그 고통의 무게는 함께 짊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억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느니라”(히 13:3)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교회에 알려야 한다. 교회가 이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은 박해에 대한 담대한 저항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아야 한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침묵하는 그들의 절규 섞인 영혼의 외침을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외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딤후 2:9).

당신 덕분에 드러난 희망

이란의 비밀 신자였던 소마예*는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후,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다른 이란 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소마예는 식탁 위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는 제 팔에서 아기를 빼앗아 식탁 위에 내려놓더니 허리띠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소마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지 않도록 참는 것뿐이었어요. 아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않길, 그리고 식탁에서 떨어지지 않길 바랐어요.”

두려움을 이긴 믿음

이 사건은 소마예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겪은 끔찍한 고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란에서 독실한 무슬림으로 자랐고 오랜 시간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은 비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벅찼어요. 그동안 기도하며 갈망했던 모든 감정이 거기 있었죠. 교회에서 나왔을 때 저는 마치 새장에서 탈출한 새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혐오했습니다.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결국 그녀는 둘째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마예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하 가정 교회를 시작했고, 어느새 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성들을 제자 훈련하며 그들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박해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점점 더 다가오는 위협

“정보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곧 보자’고 말했죠. 당국도 무서웠지만, 남편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쳐야 했죠.”

그녀는 딸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비밀 신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주최하는 리더십 훈련을 통해 소마예는 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제가 배운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받은 축복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소마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났다면, 혹은 인생의 의미를 주는 보물을 찾았다면...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마예는 그녀가 받은 신앙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이란 여성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마예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 아직 이란에 남아 있는 소마예의 아들이 어머니와 누나와 다시 만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 이란과 전 세계의 비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혼자자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카다의 위험한 비밀

카다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비밀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카다는 오늘,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를 비밀을 후원
자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에게 우리
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카다의 직장 동료이자 가까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카다는 그 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쥐는 것조차도 이 부부에게는 극도의 위험입니다. 카다와
남편 에산*은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엄격한 무슬림이었
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는 그
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기면 함께 답을 찾아갔고, 남편은 ‘네가 가는 길을 나
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 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탈레반 정권 3년, 그 무엇보다 위험한 길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10년간 오픈도어 선교회의 ‘세계 기독교 박해 순
위’에서 늘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2021년 여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슬람을 떠난 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
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피신했고, 남은 이들은 철저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들리게 되면 체포, 고
문, 그리고 죽음에 직면합니다.

이 땅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고통만 겪어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탈레반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라고 현지 사역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요한복음 13:35 -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함께 모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큰 대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다와 에산은 세례를 받았고, 비밀 신자들의 모임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을 다녀온 남편 에산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다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카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틀 후, 남편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고문당한 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카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성경 말씀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성경을 건넸던 친구가 말했어요. ‘에산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나는 울음을 멈추고 에베소서 6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죠.”

“예전엔 매일 남편과 대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카다는 그녀의 위험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아프간 신자들을 돕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는 그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에산은 없지만, 나는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성경 보급 / 제자훈련 / 생계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카다와 같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때부터 어려움을 각오했어요. 탈레반 정권 아래 우리는 도전을 겪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이 길을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 카다

**그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함께해 주세요.



카다와 같은 비밀 신자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 남편을 잃은 카다가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기도해요.
- 아프간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보호받도록 기도해요.
- 전 세계 비밀 신자들이 강한 믿음과 용기를 지니도록 기도해요.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3만원: 비밀 신자 5명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 8만원: 비밀 신자 1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12만원: 비밀 신자 10명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비밀신자



[자동이체 신청하기]

계좌입금:

중동 /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미얀마 지진 구호



2025년 3월 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은 내전으로 이미 고통받던 이 나라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킨다는 일상적 고난 위에 더해진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현지 오픈도어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지역을 찾아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무너진 집과 교회를 찾아 기도하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고드윈 이야기

2023년 7월 16일, 무장 풀라니 민병대가 나이지리아 망구 지역을 공격한 날은 당시 13세였던 고드윈*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급히 피신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옥수수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가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픈도어는 단순히 긴급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드윈은 현재 트라우마 치유 센터에 참여하며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미미* 자매는 집 수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도움을 통해 제 남편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초까지, 오픈도어는 약 800가구에 쌀, 식용유, 라면, 비스킷, 세제, 약품, 임시 주거지, 건물 수리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용서에 대해 배웠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은 사에이드

이슬람권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사에이드*는 강한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납치되어 구금당했습니다.

그는 심문을 받으며 안경도 빼앗기고, 이상한 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회개하라는 판사의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믿음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시 목회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에이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눈물과 그 모든 상처들을 넘어서,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예요. 그 분은 어둠 속에서 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제 이름 ‘사에이드’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행복이 멀게 느껴지지만, 저는 다시 기쁨을 되찾을 거라 믿어요. 제 구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3억 8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심각한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집을 떠나야 했던 소레 목사님처럼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이 형제자매들에게 혼자가 아닌 사실에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소레 목사님과 가족은 긴급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움 방법 중 하나는 월간 정기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은 오픈도어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구제부터 장기적인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월간 후원으로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 훈련, 식량 키트, 피난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7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비밀 신자들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엘마디* (모로코)와 힐라* (아프가니스탄)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이름: **엘마디**

상황: **이혼, 자녀 면접 금지,
비밀 신자**

국가: **모로코 (월드 와치 리스트 24위)**

젊은 시절, 엘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삶에 깊이 끌렸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온라인으로 기독교를 탐구했고, 결국 그는 믿음을 갖게 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무슬림이었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자기가 가진 신앙을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심을 품고 엘마디의 휴대폰을 뒤졌고, 그가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슬람으로 돌아오든지, 이혼 하든지.”

괴로운 선택이었지만, 엘마디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혼했고, 2022년 이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올 때, 그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이슬람으로 돌아갈까라는 고민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엘마디가 믿음 안에 끝까지 굳건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셨듯, 엘마디도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그의 가장 어두운 날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름: **힐라**

상황: **과부, 두 아이의 엄마,
교육받은 여성, 비밀 신자**

국가: **아프가니스탄
(월드 와치 리스트 10위)**

힐라의 어린 시절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집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부모는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힐라는 총명했고, 18세에 결혼한 뒤에도 대학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고 나에게 성경을 소개해줬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삶의 방향과 영감을 찾게 되었죠.”

그 후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성경 공부 책을 사러 다른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교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이며 가장이 된 힐라는 지역 공동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힐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힐라와 두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아프가니스탄이 억압적인 세력에서 해방되도록 담대히 기도합니다.

*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이란 (IRAN)

9위

기독교 박해지수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정부에 의해 종교적 자유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지만 여전히 탄압을 받는다. 정부는 이란의 기독교인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한다. 기독교 개종자 그룹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은 "국가 안보 범죄"로 체포, 기소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인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에 의해 인정받지만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된다. 대부분의 직업, 특히 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 기독교도들은 취업의 기회를 제한 받는다. 또한 이들은 합법적인 차별을 겪는다. 여기에는 기독교 활동이나 자료에 페르시아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란 (IR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알리 호세이니-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인구 : 89,810,000 명
 기독교인 수 : 800,000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신정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800,000	0.9
무슬림	88,288,763	98.3
바하이교	277,477	0.3
불가지론자	275,474	0.3

출처²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샤(Shah)가 축출되고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통제권을 잡으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다. 이들은 서방의 영향을 기독교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했다. 오늘날 가장 고위급이자 영향력 있는 성직자는 원리주의자(보수주의자)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Ayatollah Ali Khamenei)이다. 그는 모든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으며,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임명한다. 헌법수호위원회는 모든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직위의 모든 후보를 심사한다.

2022년 9월, 22세의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이란의 도덕 경찰에 의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받아 사망한 후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전 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회 계층이 참여했다. 이란 정권은 수천 명의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가혹한 형

벌을 내렸으며, 그 중 수십 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2024년 동안 최소 345명이 처형되었으며, 쿠르드족(Kurds), 아와지 아랍족(Ahwazi Arabs), 발루치족(Baluch) 등 소수 민족이 이러한 처형으로 불균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많은 전통적 기독교인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시위를 지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 10월 7일 시작)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공격이 증가했다. 주요 공격 중 하나는 2024년 7월 이스라엘에 의해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가 살해된 사건이다. 한편, 보복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국가 종교인 시아파 이슬람교를 따르며, 인구의 상당한 소수(10%)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따른다. 이란 헌법은 무슬림,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의 네 가지 종교 단체를 인정하지만,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차별과 법적 제한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민법은 비무슬림 남성이 무슬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독교 여성도 히잡을 착용해야 하며,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수집단,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바하이교도, 데르비시(Dervish,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신자, 무신론자 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수천 명의 이란인 대다수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는 소규모 가정 모임에 모인다. 가장 큰 위협은 이란 보안 기관으로,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시온주의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할 증거를 수집한다. 매년 수천 명의 무슬림 배경을 가진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체포, 심리적 고문(독방 감금 포함), 장기 징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의 통제는 도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다. 그러나 도시의 익명성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농촌 지역보다 모임과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진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더 강해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더욱 제한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동아시아(예: 필리핀, 대한민국)와 서방 출신의 기독교 이주자로 구성되며, 이들 중 다수는 가톨릭, 루터교, 또는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란 내 교회의 수는 극히 적으며, 일부 외국인 교회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현지 개종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강제로 폐쇄되었다. 또한, 다양한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연례 공동 기도 모임도 이란 보안 당국의 압력으로 인해 과거에 취소된 바 있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며,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같은 역사적인 민족 기독교 소수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지만,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으며,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지만, 역사적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등 시민으로 취급되며 법적, 사회적 차별을 겪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란에서 가장 큰 기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족(친척)과 사회로부터 일부 탄압을 겪고 있다. 세례는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부모가 종교적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과거에는 기독교 개종자 그룹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도자가 아닌 일반 개종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종자들을 지원하는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도 탄압을 받고 있다. 한편, 수년간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란을 탈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란 기독교 개종자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란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와 개종자 공동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렵지만,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교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종종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유대인 또는 조로아스터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또한 정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도 활동이나 가정 교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의 억압

이란의 모든 법률은 샤리아(Sharia) 법과 일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임명한 헌법 수호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시아파 학자 및 성직자로 구성되며, 모든 입법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등 최고 공직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란에서 페르시아 민족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되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여겨진다. 따라서,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기독교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부 지역의 무슬림 성직자들은 종교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란 사회 전반은 정부 지도부만큼 극단적이지 않다. 이는 온건한 수피 이슬람(Sufi Islam)의 영향력과, 이란인들이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는다.

독재적 편집증

정권은 1979년 혁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 정당성을 얻는다. 기독교는 위험한 서방의 영향으로 간주되며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정권은 모든 반대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권력 기반 유지가 최우선임을 보여준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수감된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인은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석금은 2,000달러에서 150,000달러까지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은 주택이나 사업체의 소유권 증서를 정부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은 가족의 재산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란 정권은 그들에게 국외 이주를 강요하고 보석금을 몰수당하도록 압박한다.

씨족 탄압

이란은 명예와 수치 문화를 가진 사회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란은 다민족 국가로서 일부 민족 집단은 강한 공동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개종은 종종 공동체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가족과 집단에 수치를 안겨준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개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기독교 교파 보호 주의

이란 당국은 미디어와 국제 무대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교회 대표들의 존재를 강조하여 국가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한다. 이러한 교회 대표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만이 매우 제한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제한을 따르지 않고 더 큰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다른 기독교 교파(주로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를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이란의 히잡 규정에 따라 도덕 경찰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은 2022년에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앙 때문에 구금된 여성 기독교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은 무슬림과 결혼하도록 강요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혼한 경우, 자녀는 무슬림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빼앗길 수 있다. 결혼 생활내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성적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적인 종교 박해 가해자들은 면책을 받는다. 여성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도 어렵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

- 사회적 공동체 및 네트워크 접근 금지
- 자녀 양육권 박탈
- 강제적인 종교 복장 착용 의무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정부에 의한 투옥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남성

남성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체포, 기소, 장기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보통 가족의 주요 부양자이다. 기독교로 개종할 때, 남성들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업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때, 담당자가 그들의 신앙을 발견하면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남성들은 또한 감시, 위협, 괴롭힘에 직면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국외 탈출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

- 사업/직업/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도시 또는 국외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정서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9	86
2024	9	86
2023	8	86
2022	9	85
2021	8	86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점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압박은 극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 관련 점수도 여전히 매우 높다. 이란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란 내 기독교인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란의 정치 기관은 강경파가 지배하고 있으며, 국가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국은 일상 생활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9월 16일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이후 시작된 "여성, 삶, 자유(Woman, Life, Freedom)"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종종 "시온주의 이단(Zionist cult)"의 일원, 즉 이스라엘과 연계된 집단으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주장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종자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성탄절기간에 적어도 46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다.
- **2024년 6월:** 형법 제499조 및 제500조의 개정안은 2021년 2월 법으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다. 6월에 8명의 기독교인이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은 형법 제50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6월:**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 하코프 고추만(Hakop Gochumyan)은 이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페르시아어로 된 가정 교회를 방문하고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구금 당한 기독교인 수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강제로 자국을 떠나야만 하는 기독교인
2025	17	113	43	1000*
2024	22	122	16	1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으로 인한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해야 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예: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인터넷이 감시되고 있어 이것이 체포 전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메시지(특히 페르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은 전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 기독교 자료를 열람하고 외국인 기독교인과 연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페르시아어 기독교 자료(특히 많은 양의)를 소지하는 것은 무슬림 배경의 이란인들에게 배포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슬람 배경의 개종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은 감시되고 자주 급습을 당한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은 무슬림 아동을 입양할 수 없지만,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자체 고아원을 운영하며 입양이 가능하다. 개종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1979년 혁명 이후 더욱 이슬람화된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의 자녀조차도 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은 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관련된 아동들에게 위협이 가해

졌다. 대학에서도 이슬람 역사, 쿠란 교육 및 아랍어 과목이 필수이며, 대학 지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무슬림 태생자가 기독교라고 기재하면 입학이 거부된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 전체에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준다. 이란 민법 제881조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무슬림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심지어 비무슬림 상속인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무슬림일 경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감시 대상이며, 특히 가정교회를 운영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의심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소환되어 협박을 목적으로 한 심문을 받는다. 서방 국가에 있는 정보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이란 정보기관에 보고한다. 이란 내 모든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국가가 이란 경제의 80% 이상을 통제하며, 사업을 운영하려면 연줄과 인맥이 필수적이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는 사업을 할 때 차별을 경험하며, 다른 기독교인들은 거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가 영역

정부의 고위직은 시아파 무슬림에게만 허용되며, 기독교인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단,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을 위한 세 개의 의석만 의회에 할당되어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협할 수 있으며, 국가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국가 관리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은 기독교인을 비판하며, 특히 이를 시온주의(Zionism) 및 가정교회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심문 과정에서 성희롱이 흔히 발생하며, 이는 이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개종자를 해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교회 영역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경찰에 의해 감시되며, 참석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인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교장들은 대개 무슬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 교회를 폐쇄하고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체포하는 노력을 강화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아있던 네 개의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무기한 폐쇄되었으며 재개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란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란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임의대로 체포되며, 국가 안보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공정한 재판 없이 형을 선고받는다. (ICCPR 제9조)
- 평화적인 기독교 종교 활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시당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에 의해 방해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21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 (ICCPR 제18조 및 ICCPR 제 21조)
-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감시 대상이며, 이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아동들은 강제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으며, 고등교육 및 공공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 (ICCPR 제26조)

오픈도어의 이란 사역

Open Doors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사역을 일으키고 있다.

Heart To Heart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대구지역 순회 발표'

2025년 5월 29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난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형제자매들의 간절한 이야기들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구 순회발표회에서는 성경이 금지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옥에 가는 곳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한 발걸음에 대구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구 순회발표회에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예수그리스도교회 류성호목사, 대구에서 북한선교의 길을 열고 계시는 수레바퀴선교회 김재호목사, 세계중보기도네트워크 대표 하준호목사, 참종은교회 문재철목사, 에셀나무교회 박경준목사, 송정교회 최세호목사, 빛세계선교회 목미향선교사 등 선교에 관심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박해의 의미를 다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교회와 교회, 믿음과 믿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도 이 사명을 따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과 한국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3:3 -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L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광주

일시: 7월 17일(목) 오전10:30
장소: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담임목사)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0번길 58-6
Tel: 062-655-1225

부산

일시: 8월 28일(목) 오전10:30
장소: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3
Tel: 051-740-4500

믿음과 믿음이 이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 광주와 부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웁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모집 대상

오픈도어 기도운동에 헌신할 **기도용사 30명**

일정 안내

2025년 9월 9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서 9시 30분
 (10월 7일, 11월 11일은 기도회 인도 실습 및 휴식)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Displaced People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Project Pearl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STS / iPM / SEO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장소 및 방식

-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 **방식:** 현장 참여 + 온라인 강의 병행
- **내용:** 강의 + 기도회 인도 실습 + 중보기도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실습자료 포함, 수익금은 박해지역 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및 신청

- 이메일: odsk@oepnddoors.or.kr
- 전화: 02-596-3171
- 팩스: 02-594-3171
- 신청 마감: 선착순 30명!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기



"우리는 고난 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 어린이 케어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40\$(50,000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